

西아무르 유역의 말갈 프로이즈끼 그룹 토기

므일니꼬바 L.N., 네스제로프 S.P.¹⁾

정석배 옮김²⁾

目 次

- I. 민족문화사 개관
- II. 말갈 프로이즈끼 그룹의 토기
- III. 맺음말

I. 민족문화사 개관

아무르 유역(베리아무리예)은 현재 러시아연방 아무르 주와 하바롭스크 주에 걸쳐 있는 아무르 강 상류, 중류, 하류 지역을 말하며, 아무르 강에 인접하는 중국 흑룡강성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아무르 유역의 북쪽 경계는 스타노브이 산맥을 따라 나있고, 남쪽 경계는 일후리-알린 산맥, 소흥안령의 서쪽 및 동쪽 지맥에 의해 제한된다. 소흥안령의 주맥은 아무르 유역을 西와 東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그림 1). 민족문화사의 몇몇 단계에서 소흥안령은 일정한 민족적 국경 역할을 하였다.

西아무르 유역과 東아무르 유역 출토 고고학 자료, 특히 수제 토기의 분석은 이른 시기 중세가 이 지역들에서 동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그림 2). 서쪽 부분에서는 이른 시기 중세의 시작이 서기 3세기에 형성된 미하일로브카 문화와 관련된다. 아무르 유역의 동쪽 부분에서는 중세가 서기 4세기 말-5세기보다 이르지 않은 말갈문화 블라고슬로벤노예-나이헬드 그룹(블라고슬로벤노예 그룹과 중국 영역 우안의 동인 문화들 포함하여)과 함께 시작된다. 중국 사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흑수말갈이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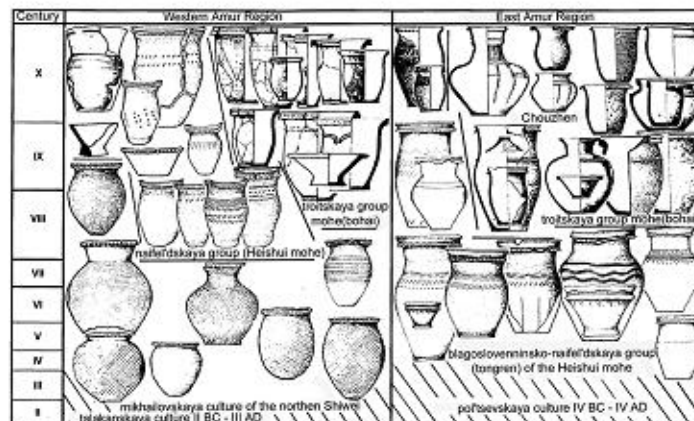
1)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2) 한국전통문화학교



〈그림 1〉 The Burials Ground in the Cis-Amur Area

발해국의 형성과 발해에 의한 인접 지역들(당시 東아무르 유역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일부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흑수말갈도 포함하여)에 대한 정복 정책으로 인해 극동지역에는 아무르 유역의 민족문화적 얼굴을 변화시킨 이주가 일어났다.



〈그림 2〉 The circuit of ethnocultural dynamics of the Population Amur Region in the IIIrd-Xth centuries AD

첫 번째로 흑수말갈(나이펠드 그룹)이 움직였다. 가장 가능성 있는 근원지는 발해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주의 종점은 西아무르 유역이었다. 흑수말갈은 西아무르 유역에서, 실위들 축출하고, 서쪽의 제야 강 하구에서 동쪽의 실위의 성산 토홀산(吐紇山) 지역의 부레이 강까지 아무르 강변을 따라 제야-부레이 강 저지의 가장 편리한 땅을 장악하였다. 실위는 그곳에서 9-10세기 초까지 생존한다. 흑수말갈은 새로이 확보한 땅에서 꽤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안착하는데 성공하였다(이에 대해서는

11-12세기로 편년되는 샤뽀까 산성의 쪽구들이 있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나이펠드 토기들이 증명한다[테레반코, 1988]). 따라서 8세기에 西아무르 유역의 민족문화사에서 첫 번째(실위) 시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기인 이른 시기 중세 - 말갈 시기 -가 시작된다.

원래는 흑수말갈의 본포 지역이 아니었던 곳인 西아무르 유역에는 흑수말갈 유적으로 노보페트로프스키 고분군, 샤뽀까 고분군, 우스찌-말라칸 계절 유적(2호 주거지와 2호 움-구덩이), 자비젠스키 고분군, 세르게예프스키 고분군, 꾸쁘리야노보 고분군, 샤뽀까 산 주거유역 등이 알려져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에 따르면 그들이 이 지역에 등장한 것은 7세기 후반보다 이르지 않은 시기였다(80년대)[네스체로프, 1998, 55쪽]. 흑수말갈의 일부가(아마도) 만주의 중심 지역(송화강 중류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가능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해국의 영향 하에 이곳에서 형성된 7세기 말-8세기 초의 정치적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발해의 행정-정치적 경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발해의 북동 경계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이 지역에서는 경계가 우쭈리 강 연안을 따라 “비긴 강 하구까지 이어졌을 것이며,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급히 꺾여서 중국동북 지방의 穆稜河를 따라 지금의 勃利縣에 다다랐을 것이다. 적어도 이곳에는 8세기에 흑수말갈의 본거지가 위치하였고, 나중에 발해에 복속되었다.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발해의 경계는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현재의 三姓과 鐵力縣으로 나있었고, 계속해서 呼蘭河를 따라 송화강과 합류하는 곳까지 이어지고, 다음에는 송화강을 따라 嫩江 하구까지 갔다가...”[발해국..., 1994, 40쪽].³⁾ M.V.바라비요프의 지도에는 발해의 북쪽 경계가 약간 다른 모습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여러 다양한 종족들과 먼 거리로 인해 발해의 북쪽 경계는 어렵게 규정된다. 아마도 그 경계는 아무르 강에 인접하면서 송화강을 따라 지나갔거나, 혹은 아무르 강의 우안으로 나가서 아무르 강을 따라, 어디에선가 방향을 틀면서, 어쩌면 아무르 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곳까지 계속되면서, 해안으로 나가면서, 북동쪽으로 갔을 것이다[바라비요프, 1994, 123쪽]. A.V.그레벤쉬코프 교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북쪽 경계선을 이해하였다: “눈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송화강을 따라 갔고... 그리고 현재의 삼성에서 약간 위 지점에서 송화강 및 아무르 강 우안과 나란히 흑수말갈 영역의 동쪽 부분을 지나 북동쪽으로 향하였으며, 다음에는 우쭈리 강 하구를 장악하였고, 그리고 하바롭스크에서 약간 하류를 지나, 약 45도의 동해⁴⁾로 갔다...”[그레벤쉬코프, 1916, 56쪽]. 唐 시기에 목단강 유역에는 200년 간 존속한 “渤海郡督府”로 불리기도 한 “忽汗州都督府”가 설치되었었다[張泰湘, 1979, 23쪽]. 이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발해인들의 무덤이 증명한다(예들 들어 흥준어장 고분군[金太順, 趙哲

3) 이 부분은 “에.세.샤브꾸노프 역음 / 송기호·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1998”의 62쪽에 관련 내용이 있음 - 역주.

4) 원본에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 - 역주.

夫, 王祥濱, 1997, 2~16쪽]).

따라서 흑수말갈의 일부 영역은 (한가 유역, 우쭈리 강 유역, 송화강 유역, 묵단강 유역, 아쉬헤 유역)은 발해에 복속되었다. “발해의 관할권”이 아무르 강의 우안 지역까지 포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막대한 영역과 주민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수말갈은 발해왕국에 큰 위협이 되었고, 중국의 玄宗 황제는 이를 이용하여 흑수말갈에 대한 발해의 전쟁을 선동하였다[발해국..., 1994, 33~34쪽].

흑수와 발해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이주들 촉진시켰고, 그 결과 흑수-피난민들은 소흥안령 서쪽의 아무르 강 유역에 출현하였다. 흑수말갈은 만주에서 눈강 상류를 따라 일후리-알린과 소흥안령 서쪽 지맥들 사이에 위치하는 고원(이 산악지역을 지나하는 유일한 편리한 통로이다)을 지나왔을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에 따르면 발해 주민들도 또한 8세기에, 흑수말갈보다는 약간 늦게, 서아무르 유역에 출현하였다. 이는 그들이 제야 강 유역을 장악해야만 했음을 설명한다. 발해인들인 흑수말갈이 지나갔던, 일후리-알린 산맥과 소흥안령 지맥들 사이의 유일한 편리한 통로인, 바로 그 길로 가서 아무르 강의 흑수말갈 분포영역으로 나왔다. 흑수말갈과의 성공적이지 못한 군사 활동의 결과 그들은, 토착 실위 주민들이 장악하고 있던, 제야 강 유역과 아무르 강 상류(제야 강 하구보다 상류)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대한 흑수말갈의 영향은 끼치지 못하였거나 혹은 미약하였을 것이다. 제야 강 유역의 발해 말갈의 고고학 유적들로 가르마간 주거유적, 우랄로브카 주거유적, 팔라쉬니코바 빠지 주거유적, 셰미야코르카 주거유적, 체렘호보 주거유적, 고골레브카 성터, 짜잔카 성터, 셰미야코르스코예 성터, 벨라야 성터, 드로이쯔끼 고분군, 두보비야 룰카 고분군[테레반코, 1975, 100~136쪽], 리빠보이 부고르 성터[블로젠 외, 1997, 160~163쪽]가 각각 해당된다. 전쟁 활동에서 발해인들이 패배한 사실은 이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조직이 아니라, 큰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지 못한, 민간인들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가까운 친족으로서, 흑수말갈과 발해인들은 꽤 빠르게 영역적 균형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접경 지역에는 혼합된 주민들이 등장하였다.

도래한 발해 주민들은 꽤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빠르게 아무르 강을 따라 쉼강까지의 북서지역 땅을 장악하였다(비트치 산의 성터, 류잔카 성터, 우스찌-쇼르나야 성터)[아플라드니코프, 라리체프, 1999; 테레반코 E.I., 1972; 일간 외, 2007]. 드로이쯔끼 그룹 주민들은 1-2천년기 교체기에 또한 제야-부레야 지역의 동쪽으로, 자비따야 강과 꾸쁘리야니하 강의 사이지역(뽀야르코보 주거유적, 샤뽀치카 주거유적, 오씨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 빠지 뿌리브레즈나야 고분군, 22라스노이 부고르 유적)으로 움직였고, 부레야 강(우히예 뿌라또끼-1, 우스찌-말라간)으로 움직여 이곳에서 철을 채취하고 용해하였고[부레야의 고대, 2000, 172~179쪽], 또한 소흥안령까지 움직였는데, 이곳의 제야-부레야 저지의 동쪽 가장자리 지역에서 그들이 남긴 주거유적(오제로 돌고예)과 성터(체스노치하, 소하지노이 글류치)가 발견되었다[블코프, 2006]. 가까운 친족성과 인접

한 거주에도 불구하고 발해인들과 흑수말갈은 아무르 유역에서 서로 서로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신지에 따라 구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그들에게서 토착 수제 토기는 서로 달랐고, 간혹 모양이 가까운 것도 있지만 문양이 서로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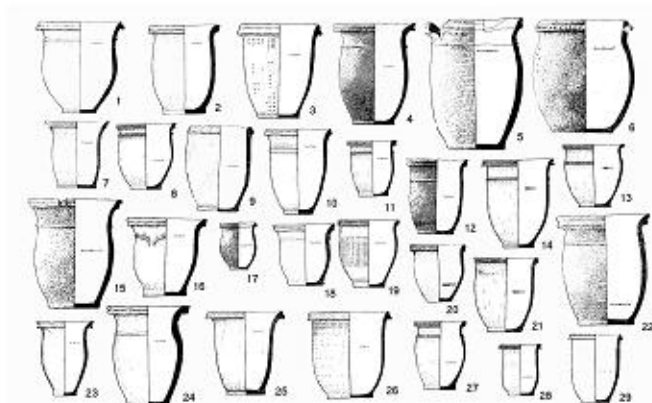
형질인류학적 연구에 의하면 발해(흑수말갈) 말갈 인들은 몽골인종에 속하였다: “몽골인종 내에서 그들은 바이칼 그룹 집단의 형태적 속성 복합체. 다시 말해서 지금 아무르 유역의 동구스-만주 민족들 - 에벤, 에첸키 - 과 개별적 고아시아 족들 - 유카기트 - 에게 표현된 속성 복합체들을 지닌다”[알렉세예프, 1980, 122쪽].

T.A.치끼셰바가 조사한 샤쯔까 고분군에 매장된 흑수말갈의 형질인류학적 특성도 몽골인종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그룹 주민들과 몽골인종 개별 변종들과의 형질인류학적 복합체의 비교 및 다음의 체계적 위치에 대한 구체화는, 민족문화적 관계에서 흑수말갈 족과 동일시되는, 샤쯔까 고분군을 남긴 주민 그룹이 프로이쯔끼 고분군에 의해 알려진 발해 말갈과는 다른 인종적 특성들로 특징 지워짐을 보여주었다. 이 그룹 흑수말갈의 형질인류학적 속성들은 극동 인종들에 특징적인 잘 진단된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주민들에서 그 변종들의 분포는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에게 나타난다[치끼셰바, 네스체로프,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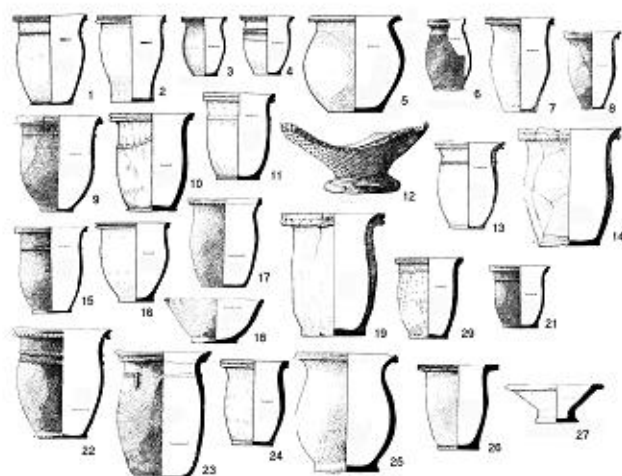
II. 말갈 프로이쯔끼 그룹의 토기

西아무르 유역 프로이쯔끼 그룹의 명칭이 유래된 유적은 프로이쯔끼 고분군이다. 이 유적은 1967년에 A.P.테레반코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아무르 주의 이바놉스끼 구역 프로이쯔꼬예 마을 부근에, 벨라야 강의 좌안 높은 강변에, 벨라야 강 하구에서 상류로 10km 거리에 위치한다. 1969~1972년, 1974년에는 E.I.테레반코[1977],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S.A.알긴[알긴, 冯恩学, 2006; 테레반코 A.P., 김봉건, 알긴 외, 2007]이 각각 발굴 조사하였다.

매우 특징적인 토기들이 출토되었다(그림 3; 4) 현재 러시아 고고학에서는 토기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연구적 접근방법이 분리되어 있다. “연구적 접근방법”이란 용어는 현재 연구 “대상”에 대한 시각의 지배적인 체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의 “정리” 및 “해석”으로 이해된다[제플린, 2005, 69쪽]. “연구적 취급방법”은 자신의 1) 연구대상의 존재, 2) 연구과제들, 3) 확보된 정보의 해석 방법들, 4) 긍정적 및 부정적 특성들로 특징 지워진다[제플린, 2005, 69쪽].



〈그림 3〉 프로이쯔끼 고분군 토기. <데렌반코 E.I. 프로이쯔끼 고분군. 노보시비르스크: 나우카. 1977. 224쪽. 그림 1, 6, 6, 11, 13-15, 19, 30, 33, 36, 37, 44-47, 51〉을 토대로 작성.



〈그림 4〉 프로이쯔끼 고분군 토기. <데렌반코 E.I. 프로이쯔끼 고분군. 노보시비르스크: 나우카. 1977. 224쪽. 그림 34, 35, 39-43, 50-54〉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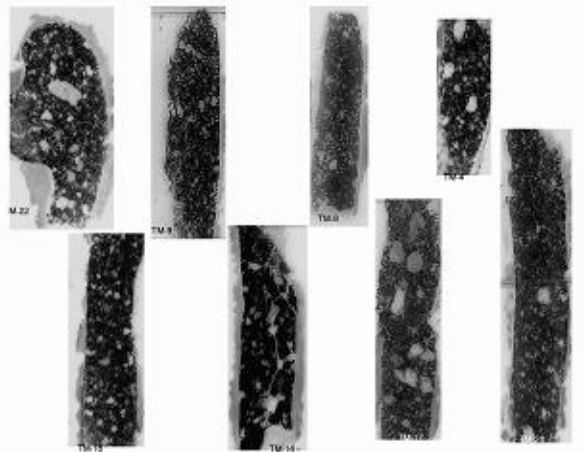
토기 자료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20세기 70년대 말에 형성된 역사-문화적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그 저자는 A.A.보브린스끼였다[1978]. 연구의 대상에 의해 이 접근방법은 토기의 표면과 단면에서 “흔적들”을, 토기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또한 토기 사용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의 노동을 적용한 결과로 규정한다. 연구의 과제는, 개별 유적들, 지역 그룹의 유적들 혹은 고고학 문화의 틀 속에서, 일정한 그룹 주민들의 도업에서 구체적인 노동 기능 및 문화적 전통을 복원하는 것이다. 자료의 해석은 다양한 문화-역사적 상황들에서의 노동 기능 및 문화 전통 수행의 법칙성 인식에 기반을 둔

다. 장인에 의한 제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의 방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된 토기 제작에서의 확고한 노동 기능들은 도업에서 문화 전통들로 불린다. A.A.보브린스끼의 의견에 따르면 수공업시대 이전의 노동 기능들의 전달은 주로 친척적인 채널들(여성 혹은 남성 라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도공들의 지식의 성격 자체를 필요로 하였다. 이로 인해 친척-도공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노동 기능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 때문에 일정한 주민 그룹 주민들에게의 도업 전통의 변화는 주민 자체의 변화들, 다시 말해서, 다른 전통을 가진 주민들의 대량적 유입 혹은 지역 환경으로의 침입,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그룹들의 혼합, 혹은 새로운 주민들에 의한 옛 주민들의 축출 등등에 대해 증명한다[보브린스끼, 1978, 242~265쪽].

트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에 대해 상안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들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유적들 및 지역들의 복합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기 위해, 통계학적 및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트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리고 활용을 위해 결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자료 처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표 자료들의 검토와 우리의 경험은 고대 토기에 대한 가장 생산적인 분석 연구는 열학 분석, 분말 뒀트젠그래프 분석, 그리고 암석학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방법들의 복합의 효율성은 이 방법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비용을 줄이고 고고학적 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보성을 높이면서, 상호적으로 보완한다는 데 있다[드레부삭 외, 2006]. 열학 실험은 고대 토기의 점토 성분들, 탄산염들, 그리고 유기물들의 효과는 밝혀내지만, 광물의 성분들(석영과 장석)을 규정짓지는 못한다. 반대로 뒀트젠그래프는 잘 결정화된 광물들의 반사들을 등록하며, 점토 광물들의 (고대의 열처리 다음에) 잘못 결정화된 흔적들을 힘겹게(배경의 차원에서) 등록하며, 유기물의 반사는 전혀 등록하지 못한다. 암석학은 점토 성분들과 보강재 사이의 양적 상호관계들, 시료에의 첨가물의 양과 기공의 존재를 제시한다. 그 외에도 트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 연구를 위해 Electron probe X-ray micro analyzer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 분석 방법은 화학적 요소들에 대한 양적 및 질적 특성을 부여한다. 모래의 성분에 포함되는 화학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의 존재, 태토에 포함되는 모래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의 확보, 그리고 개별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토기 제작 장소들 비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아마노 T. 와 오바 T, 1984, 16권, 125~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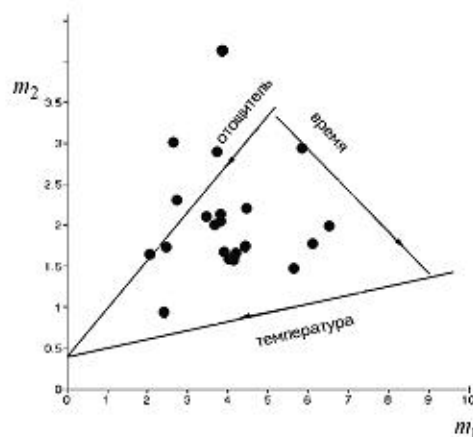
트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 박편(薄片)의 암석학적 연구는 태토로 두 종류의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가루-조각 모양의 장석-석영 성분 재료를 섞은 수운모 성분의 점토광 사질점토와 녹니석을 흔히 섞은 수운모 점토가 일부들 차지하는 사질점토. 이 두 종류의 원료는 가소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보강재를 필요로 한다.

주된 태토 처방 방법은 점토+ 모래인바, 즉 도공들은 광물 보강재로 모래를 사용하였다. 모래의 비율은 시료에 따라 20%에서 35%까지 변동을 보이나, 가장 우세한 비율은 30%이다. 혼합물은 모진 형태의 조각들이며, 크기는 0.05~3.0mm 이고, 가장 우세한 크기는 0.4~0.5mm이다. 소멸되는 태토 처방 - 점토+ 모래+ 내화토 -이 확인되었는데, 내화토의 비율이 1% 이하를 차지한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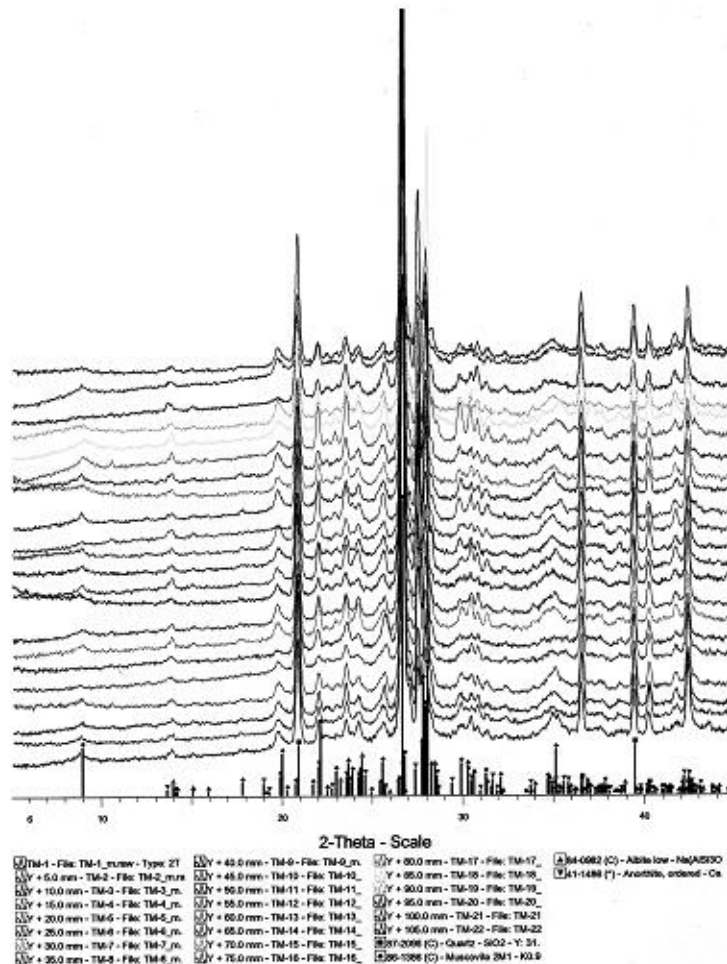
<그림 5> 프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 시료 박편(薄片)들

윈트젠 페이즈 분석(X-ray phase analysis)[타케우찌 T.I. 외, 2008]은 시료들의 성분이 동일함을 뒷받침하였고, 그리고 장석의 성분 - 조장석(曹長石)-회장석(灰長石) -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태토 보강재로서 입자가 꽤 큰 석영-장석 성분의 모래를 사용하였음을 보여 주었다(그림 6).



<그림 6> 프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 시료들의 점토 성분 보존성 다이어그램

장석의 동일성은 Electron probe X-ray micro analyzer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열학 분석 결과들은 최소한 두 종류의 토기 - 양질(良質)과 중질(中質) -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그림 7). 이것은 소성 기술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시료들 간의 시간적(편년적)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림 7〉 드로이쯔끼 고분군 출토 토기 시료의 곡선 분말 회절 그래프

토기의 형태 연구들 통해서도 꽤 흥미로운 결과가 확보되었는데(그림 8), V.F.게닝그가 제안한 통계적 토기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V.F.게닝그, 1973; 1992]. 드로이쯔끼 고분군의 이상적인 토기는, 아주 낮은, 넓은, 혹은 아주 넓은 약한 혹은 중간 정도의 곡면을 보이는 목이 있는, 중간 높이와 아주 미약하게 블록한 어깨가 있는, 높은 혹은 아주 높은 넓은 바닥의 토기이다.

ФА высотность сосуда	очень низкий до 0,40	низкий 0,41-0,60	средний 0,61-1,20	высокий 1,21-1,60	очень высокий свыше 1,60
№ сосуда				3,5,6,9,11,13,14,20,21,22, 23,24,26,27,28,29,33	1,2,4,7,8,10,12,15,16, 17,18,19,25,30,31,32
ФБ высотногорловинность сосуда	очень низкогогорлый до 0,50	низкогогорлый 0,51-1,50	среднегорлый 1,51-3,0	высокогогорлый 3,01-5,0	очень высокогорлый свыше 5,0
№ сосуда	1,2,3,4,5,6,7,8,9,11,13, 14,15, 16,17,18,19,20,21,22, 23,24, 25,26,27,28,29,30,31, 32,33	10,12			
ФВ широтноголовинность сосуда	очень узкогогорый до 0,32	узкогогорый 0,33-0,50	до средней шириной горловы 0,51-0,65	широкогогорый 0,66-1,00	очень широкогорый свыше 1,00
№ сосуда				4,5,6,9,10,14,16,17,18,25,26, 27,28,29,30,31,32,33	1,2,3,7,8,11,12,13,15,19,20,21,25,2, 3,23,33,31,32
ФГ профилровка шейки	с наклонной септурой до 0,00	оксалопротифилованная 0,01-0,26	среднепротифилованная 0,27-0,57	сильнопротифилованная 0,58-1,00	очень сильнопротифилованная свыше 1,00
№ сосуда		1,4,8,10,11,16,18,20,21,2, 2,23,24,29,31,32,33	2,3,5,6,7,9,12,13,14,15,19, 25,26,27,28,30	17	
ФД высотность тулова	сильно протифилованное до 0,50	протифилованное 0,50-0,65	округлое 0,66-1,15	выпуктое 1,16-1,50	сильно выпуктое свыше 1,50
№ сосуда			5,11,12,20,22,29,29	1,2,3,4,6,7,9,10,13,14,16,18, 19,21,24,25,26,27,28,30,31,3, 2,33	8,15,17
ФЕ высотность плечика	очень низкое свыше 2,00	низкое 1,01-2,00	среднее 0,50-1,00	высокое 0,26-0,50	очень высокое до 0,26
№ сосуда		33	1,5,7,8,9,10,11,13,14,15,16, 17,18,19,22,23,24,25,27,2, 8,30,31,33	2,3,4,5,12,20,21,25,29	
ФЖ выпуклость плечика	очень слабо выпуклое до 0,25	слабо выпуклое 0,26-0,57	средневыпуклое 0,58-1,00	сильно выпуклое 1,01-1,50	очень сильно выпуклое свыше 1,50
№ сосуда	6,7,8,9,10,11,13,14,15, 16,17,18,19,20,21,23, 24,25,26,27,28,29,30, 31,32	5,22,33	12		
ФИ ширина дна	очень узкогодонный свыше 1,50	узкогодонный 1,01-1,50	среднедонный 0,57-1,00	широкогодонный 0,25-0,56	очень широкодонный до 0,25
№ сосуда				1,4,5,6,7,9,10,11,12,13,14,1, 5,17,19,20,21,22,23,24,25,27, 29,29,30,32,33	2,3,8,16,19,26,31

〈그림 8〉 토기 지수

기벽은 두꺼운 가래벽모양 점토 떠들로 만들었고, 눌러 고르기를 병행하였다. 예정된 모양의 형성은 다음의 순서로 실현하였다: 1) 구간 단위 조립 원칙에 따라 가래벽모양 점토 떠들 원동 모양으로 윤격(輪積)하기, 2) 가래벽모양 점토 떠들을 손가락으로 변형 및 누르기, 3) 원동들의 연결과 기벽을 두르려 고르기.

설정된 프로이썬끼 그룹 토기의 유형은 오늘날에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테레반코 E.I. 1977, 110~115쪽; 디야코바, 1984, 60~76쪽]. 구분된 네 개의 형태적 토기 유형 - 호, 발, 화병, 그리고 완 -은 부레이 강 유역에서, 리파브이 부고르 고분군, 사뽀치가 주거유적, 프로이썬끼 고분군에서 새로이 출토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썬끼 그룹 토기 구성의 기본을 이룬다.

체적으로 프로이썬끼 고분군 토기복합체의 기본토대는 철저한 단일성에 있다. 개별 토기들의 특성이 전체 토기들과 몇몇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는 중국 지역의 통일시기 유적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말갈 프로이썬끼 그룹 토기의 기원 문제는 당면 문제이다. S.P.네스체로프의 의견에 따르면, 남만주의 말갈 종족들, 혹은 넓게 발해 말갈들은 8~9세기에 아무르 유역에 출현하였다. 소흥안령에서 서쪽으로는 프로이썬끼 그룹 유적들의 종족들이, 동쪽으로는 그 기원이 또한 발해인들과 관련이 있는 아무르 여진들이 각각 분포하였다. 이 상황은

아무르 유역과 송화강 유역(査里巴 고분군, 大海猛 고분군)의 고고학 자료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다[네스체로프, 알킨, 1999]. 발해 말갈이 아무르 유역에 도래하면서, 미하일로브가 문화 실위 북쪽 그룹과 나이펠드 그룹 흑수말갈에 특징적이 않은, 그러나 査里巴 고분군에 잘 제시되어 있는, 유물 복합체들이 등장한다. 일정한 유사성 이외에도, 유물과 매장방식에도 차이도 있다. 첫째, 아무르 유역의 고분들에서는 피장자들이 등을 아래로 하여 다리를 접고 무릎을 위로 올린 상태로 안치되었다. 사리파 고분군에서는 모든 피장자들의 다리가 곧게 펴진 상태였다. 둘째, 사리파에는 고리와 옥 원판-늘이개로 구성된 복합 귀걸이가 없고, 또한 문양이 시문된 말굽 뼈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르 유역의 유적들에서는 그와 같은 유형의 귀걸이들이 매우 널리 발견되고 있고, 문양이 시문된 말굽 뼈는 드로이쯔끼 그룹 유적들에는 많고, 아무르 여진들에는 약간 적다. 셋째, 사리파 고분군 출토 부장품들은, 아무르 유역의 유적들에서와는 달리, 무덤에 부장을 하기 전에 특별히 훼손을 한 흔적이 없다.

만주와 아무르 유역 출토 토기들의 명백한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남만주 토기들에, 드로이쯔끼 그룹의 수제 토기에 그렇게도 특징적인, 격자문이 없음을 지적해야만 한다.

러시아의 연구자들(S.P.네스체로프, D.P.볼로젠)에게는 말갈 드로이쯔끼 그룹이 도래한 송화강 말갈들과 지역의 미하일로브가 문화 주민들의 문화가 결합한 결과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 결과 발해 말갈들의 토기 생산에서 토기 성형 시에 표면이 매끈한 박자 타날이 아니라 격자문이 새겨진 박자 타날을 이용하게 되었다. 바로 그와 같은 유물들이 아무르 강 변의 사뽀치가 주거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도래한 발해 말갈들의 토기 생산에서 구순의 외면에 응어리가 남는 토기 구순 처리 방법은 미하일로브가 종족들의 도업에서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미하일로브가 토기에서는 그 응어리들 매우 드물게 제거하였으며, 사리파 고분군 토기에는 그와 같은 요소가 없다. 西아무르 유역 주민들의 도업에서 이 기법은 이미 멀리간 문화에서부터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말갈 도공들은 토기 생산에서 이 단순한 토기 구순 처리 방법을 고착화하면서 이후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개작하였다. 그 결과 응어리는 특별히 부착한 점토 띠로 바뀌었고, 나중에 그 점토 띠를 홈 선으로서 2개의 용기대로 나누었는데, 위의 용기대는 응어리들 모방하였다[프일니코바, 네스체로프, 2005]. 이 모양의 말갈 드로이쯔끼 토기가 드로이쯔끼 고분군, 리빠보이 부고르 고분군, 사뽀치가 및 가르마간 주거유적, 부레야 강 유역의 유적들 등에서 확인되었다.

말갈 도업의 이 새로운 양상들은 드로이쯔끼 말갈들의 향후 분포가 西아무르 유역과, 이전에 제기된 것처럼, 자바이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르 여진들에 그와 유사한 토기들이 보이는 아무르 강 하류를 따라서도 일어났음을 증명한다.

III. 맺음말

이른 시기 중세에 아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민족문화사는 개별 지역들 간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물질 및 정신문화 영역에서 긴밀하게 관련되었다. 西아무르 유역은, 이 지역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공동의 역사적 과정에 포함되었었다. 대부분이 발해 주민들인 동구스어 말갈 종족들의 이 지역으로의 이주는 물질문화의 교체뿐만 아니라 몽골어 北실위의 동화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주민들과 토착민들과의 서로 서로에 대한 영향은 상호적이었다. 현재 미하일로브카 문화(북실위)의 도업이 도래한 발해 말갈들의 토기 생산에, 조금 작은 정도로는 흑수 말갈에, 조금 많은 정도로는 속말 말갈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다양한 주민 그룹들 토기의 기술적 특징들의, 하나의 도식에 따라 얻어진, 비교 결과들이 줄 수 있을 것이다.

西아무르 유역으로 이주민들이 도래하면서 면적이 큰 주거유적들과 거대한 고분군들이 등장하고, 방어용 성의 모양이 바뀌며(둥그스름한 모양이나 타원형에서 장방형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물질 및 정신문화가 바뀐다. 이것은 미하일로브카 문화의 토착 주민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및 민족문화적 압박이었고, 결국 10세기경에는 미하일로브카 문화의 소멸을 초래하였다. 말갈 주민들은 아주 빠르게 西아무르 유역을 장악한 다음에 아무르 강을 따라 상류로 향하였고 그리고 자바이칼 지역으로 나갔다.

〈참고 문헌〉

- Алексеев В.П.(알렉세예프 V.P.). Материалы по краниологии мохэ // Палеоантропология Сибири. - М., 1980. - С. 106 - 130.
- Алкин С.В., Фэн Эньюэ(알긴 S.V., 冯恩学). Совм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Троиц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2004 г. // Вестник НГУ.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2006. Том 5, выпуск 4: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Новосибирск. 2006. - С. 132 - 134.
- Алкин С.В., Нестеренко В.В., Васильев С.Г., Колосов В.К.(알긴 S.V., 네스체렌코 V.V., 바실리예프 S.G., 콜로소프 V.K.).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городище Усть-Чёрная в Сре́тенском районе Чи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2006. - Т. XIII. - С. 168 - 172.
- Аmano T. и Oba T.(아마토 T와 오바 T). Литологический метод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 керам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и попытка поиска места изготовления // Бюллетень по изучению северных культур (Хоппо бунка кенкю).- 1984. - Т.16. - С.125-163 (на япон. яз.)
- Бобринский А.А.(보브린스끼 A.A.). Гончарство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сточники и методы изучения.- М.: Наука. 1978.- 272 с.
- Болотин Д.П., Сапунов Б.С., Зайцев Н.Н., Сапунов И.Б.(볼로진 D.P., 짜푸노프 V.S., 자이체프 N.N., 짜푸노프 I.V). Новый могильник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Приамурье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1997. - Т. III. - С. 160 - 163.
- Волков Д.П.(볼코프 D.P.). Новые городищ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2006. - Т. XII, часть 1. - С. 304 - 307.
- Воробьев М.В.(바라비요프 M.V.). Маньчжурия и восточная Внутренняя Монголи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IX в. включительно).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1994. - 410 с.
- Генинг В.Ф.(게닝 V.F.). Программа 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обработки керамики из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ок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73.- № 1.- С.114-135
- Генинг В.Ф.(게닝 V.F.). Древняя керамика: методы и програм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Киев: Наук. Думка. 1992.- 188 с.
-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698 - 926 гг.) и племе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발해

- 국(698-926년)과 러시아 극동의 종족들). - М.: Наука. 1994. - 219 с.
- Гребенщиков А.В.(그레벤쉬코프 A.V.). К изучению истории Амурского Края по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ии // Юбилейный сборник Музея Общества Изучения Амурского Края за первые 25 лет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 Владивосток. 1916. - С. 50-75.
- Деревянко А.П., Ким Бонгон, Алкин С.В., Нестеров С.П., Субботина А.Л., Хон Хёну, Ю Ынхк(테레반코 A.P., 김봉건, 알긴 S.V., 네스체로프 S.P., 수보치나 A.L., 홍형우, 유은식). Совм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Троиц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2007. - Т. XIII. - С. 37 - 42.
- Деревянко Е.И.(테레반코 E.I.). Племена Приамурья и Забайкалья // 50 лет о освобождения Забайкалья от белогвардейцев 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тервентов. - Чита: Читинск. педагог. институт. 1972. - С. 81 - 89.
- Деревянко Е.И.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а Среднем Амуре.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75. - 250 с.
- Деревянко Е.И.(테레반코 E.I.). 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77. - 224 с.
- Деревянко Е.И.(테레반코 E.I.). Городище на горе "Шапка" // Эпоха камня и палеометалла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СССР. - Новосибирск. 1988. - С. 110- 126.
- Дребущак В.А., Мыльникова Л.Н., Дребущак Т.А., Болдырев В.В., Молодин В.И., Деревянко Е.И., Мыльников В.П., Нартова А.В.(드레부샤 V.A., 므일니코바 V.P., 드레부샤 T.A., 볼드이레프 V.V., 몰로딘 V.I., 테레반코 E.I., 므일니코프 V.P., 나르토타 A.V.). Физико-хим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керамики (на примере изделий переходного времени от бронзового к железному веку.-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СО РАН. 2006.- 98 с.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О РАН; Вып. 6).
- Древности Бурен(부레야의 고대) / С.П. Нестеров, А.В. Гребенщиков, С.В. Алкин, Д.П. Болотин, П.В. Волков, Н.А. Кононенко, Я.В. Кузьмин, Л.Н. Мыльникова, А.В. Табарев, А.В. Чернюк; отв. ред. Е.И. Деревянко. -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0. - 352 с.
- Дьякова О.В.(디아코바 O.V.).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е жилищ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 Вопросы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 Владивосток. 1987. - С. 51-66.

- Мыльникова Л.Н., Нестеров С.П.(므일니꼬바 L.N., 네스체로프 S.P.). Михайл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Западном Приаму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Монография.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05. С. 357-380; 394-408.
- Нестеров С.П.(네스체로프 S.P.).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8. - 184 с.
- Нестеров С.П., Алкин С.В.(네스체로프 S.P., 알긴 S.V.).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могильник Чалиба на р. 2-я Сунгари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 Благовещенск. 1999. - Вып. 2. - С. 153-176.
- Окладников А.П., Ларичев В.Е.(아끌라드니코프 A.P., 라리체프 V.E.).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бассейне Амура в 1954 году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1999. - Вып. 2. - С. 4 - 29.
- Такеучи Т., Мыльникова Л.Н., Нестеров С.П., Деревянко Е.И., Алкин С.В., Кулик Н.А.(타케우치 T., 므일니꼬바 L.N., 네스체로프 S.P., 테레반꼬 E.I., 알긴 S.V., 쿨릭 N.A.). Микроэлементный анализ песка формовочных масс с керамики памятников Приамурья //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2008 (в печати).
- Чикишева Т.А., Нестеров С.П.(치끼셰바 T.A., 네스체로프 S.P.).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гильника Шапка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2000. - Т. VI. - С. 458 - 462.
- Чжан Тай сянь(張泰湘). Первобытная стоянка у деревни Дункан уезда Наньгань //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древности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ь. - Харбин. 1979. - С. 23 - 26.
- Цетлин Ю.Б.(체틀린 Yu.V.).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некоторые задачи изучения древней керамики // РА. 2005. - №3. - С. 69-75
- Цзинь Тай шунь Чжао Чжэфу, Ван Сянбин(金太順, 趙哲夫, 王祥濱). Раскопки могильника Хунсюньюй чан (г. Нингань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ь) // Каогу. - 1997. - N 2. - С. 1 - 16 (97 - 112).

西아무르 유역의 말갈 프로이쓰끼 그룹 토기에 대한 토론문

홍형우¹⁾

「西아무르 유역의 말갈 프로이쓰끼 그룹 토기」를 발표하신 모일로코바 L.N.과 공동저자인 네스체로프 S.P.는 아무르 유역을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오랫동안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왔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신 모일리코바는 아무르 유역에서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기를 형태적인 면뿐 아니라 암석학적, 화학적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고고학자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분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들 드리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본 연구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들 드린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앞부분에서는 아무르 유역에 대한 민족문화사에 대한 개관이고, 뒷부분은 말갈 프로이쓰끼 그룹의 토기에 대한 각종 분석 결과들이다. 앞부분은 네스체로프 박사가 2005년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표한 「서부 아무르유역 초기중세 토기」²⁾에 최근에 조사된 유적을 추가하여 논지를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되며, 토기의 분석은 최근에 이루어진 성과로 판단된다. 토론자가 이번에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아무르 중·하류 및 연해주의 폴체유적을 공부하고 있고, 작년인 2007년에 아무르 중류의 프로이쓰끼 고분을 공동저자의 한분인 네스체로프와 공동으로 발굴조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西아무르 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지식 즉, 미하일로브까문화, 나이펠드그룹, 프로이쓰끼그룹 등 이 지역 중세고고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짧은 토론자로서는 본 발표문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자하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발해국의 형성과 발해에 의한 인접지역들에 대한 정복 정책으로 아무르 유역의 민족문화적 얼굴을 변화시킨 이주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실위, 흑수말갈, 발해말갈을 언급하고 있다. 실위는 미하일로브까문화, 흑수말갈은 나이펠드그룹,

1) 국립문화재연구소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서부 아무르유역 초기중세 토기」, 『문화재지』 98호, 2006.

발해말갈은 트로이츠키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세 개의 고고학적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한다. 특히 나이펠드그룹과 트로이츠키그룹의 구분은 수계토기에서 구연부와 문양에서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둘째, 발표자는 “흑수말갈이 西아무르 유역으로 이주한 것을 7세기 후반보다 이르지 않은 시기”로 보면서, “만주의 중심지역(송화강 중류지역)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나이펠드 그룹은 아무르 유역의 나이펠드, 블라고슬로벤노예를 비롯하여 중국의 靉北 圖結유적 등 동인문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중심지역이 현재의 하바롭스크시 주변에 해당하는 아무르 유역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펠드그룹의 기원과 초기 중심지역 그리고 전개양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셋째, 트로이츠키 고분군 출토의 토기를 열학, 분말 원트젠그래프 분석, 그리고 암석학 분석 방법 등을 통해 분석하여 태토 처리 방법과 시료 성분의 동일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토기의 질이 양질(良質)과 중질(中質)로 나뉘며, 이들 시간적(時間적) 차이에 따른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그림 7에 대한 추가설명을 부탁한다.

넷째, 토기의 생산에서 토기 성형시 표면이 매끈한 박자 타날이 아니라 격자문이 새겨진 박자 타날을 이용한 것을 트로이츠키 그룹의 수계 토기의 특징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격자타날과 구순의 외면에 응어리가 남는 토기 구순 처리 방법을 미하일로브카 문화 주민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르 유역의 격자 타날 기법의 기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하며, 아울러 응어리 남는 구순 처리 방법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한다.

다섯째, “西아무르 유역으로 이주인이 도래하면서 면적이 큰 주거유적들과 거대한 고분군들이 등장하고, 방어용 성의 모양이 바뀌며, 그 수가 증가하고, 물질 및 정신문화가 바뀐다”고 설명하면서 “아무르 강을 따라 상류로 향하였고 그리고 자바이칼 지역으로 나갔다”고 결론짓고 있다. 자바이칼 지역에 남아 있는 유적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중 발굴조사된 것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한다.

